

현대 흙건축의 버나클러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ernacula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Earth Architecture

김 태 훈*

김 순 응**

Kim, Tae-Hoon

Kim, Soon-Wung

Abstract

Vernacular perspectives had been ignored in the movement of modern architecture. This study's purpose was to review vernacular perspectives and to identify vernacular characteristics of earth architecture. Six representative contemporary earth architects were selected, and then their works were analyzed. Themes of vernacular architecture based of Frampton's critical regionalism were emerged. Findings were as following: 1) constructed by considering the local climate and the region's natural characteristics, 2) constructed with local materials seeking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finishing work, 3) having tectonic form included regional characteristics, 4) creating space of various senses and expression of texture through earth modeling, 5) presenting homogeneity of sense of place between site and architecture, and 6) pursuing ecological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Thes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earth architecture reflect the vernacular architecture inherited continually in architectural history. Therefore, contemporary earth architecture has been in line with contemporary architecture aiming for sustainability.

Keywords : Earth Architecture, Vernacular, Critical Regionalism, the Sense of Place, Tectonic Form, Sustainability

주요어 : 흙건축, 버나클러, 비판적 지역주의, 장소성, 구축적 형태, 지속가능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 현재를 통틀어 흙건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어져 온 건축 양식이며,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담고 있는 가장 자연친화적인 건축방식이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근대주의 건축이후 대량 생산성과 기능성 우선의 건축이 각광 받으면서 흙건축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그 활용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문화권별로 많은 건축가들은 현대에 개발된 다양한 공법과 기술에 접목된 흙건축 디자인의 방법들을 찾아오고 있으며, 최근의 친환경적인 건축 트렌드의 형성과 함께 새롭게 그 가능성들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흙을 건축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 온 민족임에도 일체의 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과 급속한 현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흙건축의 진화과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새로운 건축재료와 공법들에 의한 건설 우선의 건축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흙건축은 단지 과거지향적인 토속성을 유지하는 전 원주택이나, 재료의 특성만을 핵심가치로 활용하는 짚질

방이나, 펜션 등의 부가요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일부 건축가들이 고가의 시공비와에도 불구하고, 흙이 갖는 질감 자체만을 활용, 공간에서의 미학적인 선택 요소로서 돋보이기 위해 차용하는 흙다짐벽을 세우는 정도로 흙건축의 범주를 형성해 왔다. 이렇듯 몇몇 건축가들의 흙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와 작품을 통한 현대적 해석 노력에도 불구하고, 흙이라는 요소가 단지 '토속적', '과거적'인 재료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인식의 문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흙건축이 현대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부적인 공법위주의 적용과 토속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왔던 지역건축에서의 토착화(vernacular)의 의미와 특성들을 살펴보고 근세기에 지어진 흙건축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여 흙건축의 현대화 가능성에 대한 제조명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논문은 버나클러 이론을 토대로 한 흙건축의 현대성 구현을 위한 연구이다. 논문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건축운동에서 간과되었던 버나클러에 대한 의미 파악과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1970년대 지역주의 논의를 촉발시킨 프램턴(Kenneth Frampton)의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다. 둘째, 상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범주를 근간으로 한 버나클러 건축의 표현 주제별 특성들을 분석한다. 셋째, 흙건축의 개념

* 정희원, 목포대 건축학과 부교수

** 정희원, 목포대 건축학과 초빙교원, 예술사학박사 (교신저자 theo713@nate.com)

본 논문은 2014학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 특성을 살펴본 후 흙의 건축 재료적 가치와 근대건축의 조형언어를 잘 접목시킨, 20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흙건축가 6명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버나클러적 특성을 파악하여 흙건축이 지역성을 근간으로 한 지속가능한 현대 건축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2. 버나클러의 의미와 비판적 지역주의

1964년 MoMA 전시회 [건축가 없는 건축]의 성공은 건축에서 토착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나타낸다. 전시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익명의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은 기존의 건축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풍토적 조건에 순응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일상의 사회,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의 지방성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건축’들을 일컬어 버나클러 건축이라고 한다. 그것은 버나클러의 라틴어 어원인 ‘vernaculus’는 ‘토착의, 자기집에서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좀 더 넓은 뜻으로 ‘지역적인 전통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냄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²⁾ 따라서 버나클러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자연에 순응해온 시간의 가치가 담겨 있고 지역적 특성에는 기후, 풍토, 전통 재료나 구축방식 등이 있다. 이들 요소들이 시대에 따라 서로 관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각 시대의 건축양식이다.

20세기 들어 근대건축운동을 통한 보편성에 대한 지향이 국제주의 건축양식을 낳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 3세계 국가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오랜 전통과 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한편 포스트 모던 이후 현대건축에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 장소성, 전통성 등을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는 버나클러 건축에 대한 인식을 자칫 토착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제한된 지역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외부의 요소들을 ‘제한하는 지역주의’가 아닌,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는 ‘자유의 지역주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³⁾ 이 글의 논점은 기존의 제한된 지역주의가 표방하는 ‘보편적 문명’으로서의 모더니즘과 토착적 건축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체하고 외부요소와 토착적 요소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다. 즉 모더니즘 이전의 보편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버나클러 건축의 전통을 계승하며 세계

성과 지역성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으로서의 프램턴이 주장하는 세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⁴⁾ 첫 번째, 공간(space)에 대비한 장소화(place-form)에 대한 주장이다. 그는 서구 유럽에서 60년대 이후의 도시계획에서 보여지는 단순 분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추상화된 공간이 장소를 잃게 만든 주요인이라고 비판하며 하이데거의 ‘spatium’과 ‘raum’의 개념을 빌려와 공간의 대비를 통해 장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건설하다(building)라는 뜻이 거주(dwelling)하고 더 나아가 존재(being)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며 건축은 인간에 의해 경험되어진 장소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요소들과 텍토닉한 형태다. 자연적인 요소란 지형, 맥락, 기후, 빛 등을 말하는데, 건물의 형태는 그 건물이 위치한 지형이 만들어진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등과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와 빛의 정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그는 개구부를 어느 곳을 향하여 만들 것인가, 혹은 자연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텍토닉한 형태(tectonic form)란 중력의 작용에 저항하는 구조적 형태의 구문론으로, 단순히 건물의 구조적 뼈대를 드러내는 것과는 비교된다. 즉 건물을 지지하는 기술적 수단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 가능하게 되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실제(mythic reality)를 드러내는 것이 텍토닉한 형태다.

세 번째는 촉각적인 것이다. 프램턴은, 르네상스로부터 만들어진 퍼스펙티브 이론에 의한 시각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오늘날 형태적 재현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했고, 이것은 건물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각을 잃게 하면서 건축을 이미지, 즉 시각적인 차원으로 축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해 계단을 걷는다는 경험과 마감 재료에 대한 감각, 소리,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통합적 경험, 이런 촉각적인 것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아움’에 대한 것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촉각적이고 텍토닉한 형태를 통하여 근대건축운동에서 지향한 보편적 공간에 대응하는 구체적 장소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가 현대의 건축적 상황에 얼마만큼 유효한지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적합한지를 버나클러 건축의 특성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버나클러 건축의 표현주제별 특성

(1) 기후 및 풍토

원시건축에서 기후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1) 버나클러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토착화’ ‘토착적’ ‘풍토적’ ‘민속의’ 혹은 ‘지역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로의 해석이 오히려 의미를 축소하거나 혼돈 시킨다고 판단되어 버나클러로 쓰고자 한다

2) 임영환, 지역주의 건축의 현대적 해석과 지속가능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9 n.1, p.126, 2013.01

3)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rospect: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Vol 20, p.153, 1983

4) 김승범, 김광현,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8, p.218-219, 2011

원시인은 주로 은신처에 관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기후적인 불가피성이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⁵⁾ 물론 도시 형태나 주거 유형에 따라 기후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후가 형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편 풍토란 어떤 토지의 자연과 인간의 생활이 어울려 형성된 특유한 토지의 성질로, 인간에게 의식되고 그 생활 문화에 영향을 끼쳐 사람들에게 의해서 경작되고 변화되는 자연을 말한다. 따라서 풍토는 기후와 토지를 의미하나, 단순한 자연만이 아닌, 인간의 존재를 전제(前提)로 하여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연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에 기초한 자연과의 관계는 사람과 풍토사이의 감각적 교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풍토는 각 나라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기후 및 풍토에 얼마나 적응하며 지어졌는가는 버나쿨러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전통적 재료와 기술

건축물에 쓰인 재료가 반드시 건축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에서의 재료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며, 결과물로서 건축을 구성하는 실제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재료가 결과물로서 건축으로 표현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재료가 갖는 물성이다. 따라서 그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그 물성에 맞추어 짓는 방식이 발달하였는데 그것이 각 지역마다의 전통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기술이 오늘날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버나쿨러 디자인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버나쿨러 건축에서 재료는 보통 주변 환경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채취하기 쉬운 재료가 중심이 된다.

(3) 구축적 형태

앞서 언급한 텍토닉한 형태는 단순히 건물의 구조적 뼈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감수성과 예술성을 드러내는 것이 텍토닉한 형태다. 여기서 구축 'tectonic'의 어원은 'tekton'으로 원래 'tekne'와 함께 직조나 결합을 의미하는 어원 'tekth-'에서 유래된 말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의미로서 부각된 '목공술과 건설(construction)'의 개념은 건축의 재료적·구조적 결합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tectonic은 '건물의 일부분'과 '요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tectonic은 '창작의 시학'과 같은 예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와 유용성을 동시에 포함한 조형예술로서 확대된 의미를 갖는다.⁶⁾ 구축적 형태는 일시적이거나 격식적이기 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의해 조심스럽게 형성된 영속적이며 전통적인 것으로, 실용적 강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속에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사고와 감성을 표상해 내는 구체적인 형태와 형식의 일종으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⁷⁾ 이러한 버나쿨러 건축에서 보이는 구축적 형태의 특징은 지역적 특성, 즉 지역의 문화, 의식, 생활양식, 사회조직, 기후와 경관 그리고 유용한 재료와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유형 사이에 보이는 유사점은 어떤 요인들이 일치하는 지역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인간의 필요성과 욕망에는 기본적인 불변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⁸⁾ 이렇듯 폭 넓은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의 어떤 불변적인 요소의 재현이 커다란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큰 변화를 격지 않고 받아들여진 원형이 존재함으로써 형태를 매우 강하게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버나쿨러 건축은 단순 구축적 형태의 훌륭한 예증이며, '원시건축'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⁹⁾

(4) 감각적 공간

'그리고 나는 옛집의 그 다갈색 따뜻함이 내 오관에서 마음으로 다가옴을 느낀다.'¹⁰⁾ 건축의 모든 촉각적 체험은 다감각적이다. 건축은 모든 영역들이 서로 교차하고 혼합되어 체험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축적 체험은 유일한 장소에 있어서의 존재감이다. 그리고 인간이 공간을 체험해 나가는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지어 주는 것은 '신체'에 근거한다. 그리고 신체에 의해서 지각되는 재료, 빛, 색의 감각적인 속성들과 조인트의 상징적이고 촉각적인 의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미스의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한 표현의 심층적 의미이다.¹¹⁾

감각적 공간이란 즉 재료에 대한 감각, 소리,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통합적 경험, 이런 촉각적인 것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까움'에 대한 것을 회복하게 해준다. 보편성을 중시한 모더니즘 건축과는 다르게 버나쿨러 건축의 특징은 익명의 건축가 혹은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디테일들이 개별적으로 지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7) 변태호,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지), v.6 n.1, p.72, 1997

8) Amos Rapoport, Op. cit., p.31-32, 1985

9) 원시건축에 대한 논의는 아래 논문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며 다음 글이 위의 논증을 구체화 한다. '각 건축의 유형과 형태는 각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적 구축의 결과물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각 시대의 정신은 당시 건축 구조를 통해 집약 표현된다고 본다' (남성택, 이상진, 단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9, p.184, 2011)

10) 장 바알 Jean Wahl, <시집 Poems>, p.23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에서 재인용, 동문선, 2003

11)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과 현상학적 건축설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12, p.23, 2007

5) Amos Rapoport, 이규복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p.37, 1985

6) 김낙중, 루이스 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p.15, 1999

(5) 장소성

장소(place)라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대지 위의 특정한 지점을 일컫는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지는 장소성을 형성하며, 그 장소는 지역 환경에 따라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의 아이덴티티는 건축가의 디자인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이고 정서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대지와 그 주변에 공존하는 지형, 기후, 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친숙한 이미지의 건물을 조성하려는 건축가의 구축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추상적인 공간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건축이 속한 역사, 문화, 풍토, 기후, 지역성, 도시성 등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과 관계있다. 이렇듯 지역건축이 토착화한다는 것은 건축이 땅과 관계맺기를 하여, 땅이 가진 장소성을 불러일으키고, 땅이 가진 역사성과 풍토성을 들추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성, 일반성, 절대성을 중시한 모더니즘 건축의 환원주의적 태도를 벗어나 상황과 대지의 구체성, 특수성, 상대성에 기초한 버나쿨러 건축의 가치를 의미한다.

(6) 지속가능성

모더니즘 건축이 지역의 풍토와 문화에 기반을 둔 특수성이 결여된 보편성을 지향함으로 인해 전통이 단절되고 이러한 단절은 단순히 지역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토착화 된 건축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온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호 공생의 경험들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생의 기회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20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는 대부분이 기술 중심적 인식과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버나쿨러 건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의 환경에 맞춰 진화되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적 배경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버나쿨러 건축은 지역의 삶과 문화의 흔적이 묻어 있고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버나쿨러 건축은 자연환경에 건축물을 조화시키며 첨단기술의 도움 없이도 월등한 환경적 이득과 저비용 고효율의 계획방법에 의해 건설되었다.¹²⁾ 버나쿨러 건축은 특히 환경 조절적인 측면인 환기, 난방, 냉방의 문제를 적절한 건축적 단면과 건축의 향과 배치, 건축 재료로서 풀어가는 방법 등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버나쿨러 건축의 지속가능한 특징은 외형적인 형태에 대한 치중보다는 노동량을 줄이고 지역의 풍토에 적응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후와 지형에 조화를 우선시한 결과이다.

12) 임영환, 김광현,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획적 연구 방향 탐침,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 n.11, p.120, 2010

4. 흙건축의 버나쿨러 특성과 작품 분석

4.1 흙건축의 의미와 버나쿨러 특성

흙건축은 흙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건축을 말한다. 즉 흙건축은 '자연상태의 흙을 소재로 하는 건축행위와 그 결과물이며, 좁은 의미로는 건축의 주된 재료로서 흙의 역할이 강조된 건축물'로 정의한다.¹³⁾ 흙건축은 일 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류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는 바로 흙을 이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흙과 관련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⁴⁾ 이렇듯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흙건축을 버나쿨러 특성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후 및 풍토

기후대에 따라 흙의 구성비도 다르고 그에 따라 구축방식도 다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의 흙건축 분포도¹⁵⁾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를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면 북부지역은 대체적으로 비가 많아 풍부한 목재를 활용한 나무 뼈대에 흙을 채우는 방식이 이 지역 건축물의 60%를 차지한다. 프랑스 서부지역은 점토질 토양을 활용하여 거푸집 없이 흙쌓기 공법으로 지어진 집이 대부분이다. 한편 거푸집에 흙을 채워서 다지는 방식의 건축은 룬알프스 지방의 40%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형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 뒤 자연 상태에서 말린 흙벽돌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온화한 프랑스 남서부지역에 발달했다. 이와 같이 기후대에 따라 구축방식을 달리하며 그로 인한 건축유형도 차이를 보인다.

(2) 재료적 특성

흙건축의 기원은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채집경제로부터 신석기 시대의 생산경제체제로 바뀌면서 정착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변에서 가장 채취하기 쉬운 재료가 중심이 되었는데 서남아시아지역은 사막건조기후이므로 흙에 의존하여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이 버나쿨러 건축에서 흔히 보이는 재료적 특성과 일치한다. 이 지역의 흙건축은 재료 자체가 마감의 역할을 하며 별도로 마감재가 사용되지 않은 구조체로서 건축을 구성하는 실재적인 요소이다. 자연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버나쿨러 건축의 특성 또한 재료가 결과물로서 가장 잘 표현된 사례들이다.

13) 황혜주, 흙건축, 씨아이알, p.20, 2008

14) Laetitia Fontaine, Romain Anger 공저, 김순웅, 조민철 역, 건축 흙에 매혹되다, 효형출판, p.20, 2012

15) Laetitia Fontaine, Op. cit., p.42, 2012

(3) 구축적 형태

흙건축의 가장 큰 구조적 특성은, 흙벽은 그 자체로 구조이자 동시에 외벽이 되고 실내 마감면이 된다는 것이다. 흙벽은 세워지면 재료를 입히거나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흙이 거푸집 안에서 다져져 구조체로서 구축되어가는 건축 과정이 직접적인 결과물이 되고, 그대로 밖으로 노출된다. 차드와 카메룬의 접경 지역에 있는 무스굼족의 오비스 오두막은 포물선 아치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 졌다. 맨손으로 흙만 이용하여 9미터 높이로 만든 이 주거방식은 구조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져 있다. 근대건축의 효시인 미국 건축가 루이스 설리만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에 해당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가 아이러니 하게도 이와 같은 유형의 버나쿨러 건축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유기적 단순성과 구축적 진실성이 건축의 형태를 결정한다.

(4) 감각적 공간







흙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흙의 이미지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공감각적인 매개체로서 인간에게 심미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미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 외에도 촉각과 후각 등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흙이 지닌 조형적 잠재성으로 인하여 건축은 조각 작품처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 서쪽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진흙을 이용한 방코 건축¹⁶⁾은 맨손으로 작업을 함으로 해서 재료를 직접 만지며 느끼는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있다. 이러한 재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잃어버린 ‘가까움’에 대한 회복이다. 또한 빛은 흙다짐 벽의 거친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유리나 나무 대리석등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공간 안에서 시각과 촉각을 자극한다.

(5) 장소성

미국의 철학자 수잔 K. 랭거(Susanne K. Langer)는 ‘건축은 장소의 특성을 시각화한다.’ 는 말로 장소와 건축의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하였다.¹⁷⁾ 이 말은 건축이 세워진 대지 위에서 그 장소의 의미를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대지는 즉 흙, 돌, 나무,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 표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흙을 기초로 만들어진 건축물은 대지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 예들 들어 흙다짐으로 만들어진 벽은 수평적으로 다져진 토층으로 인하여 지질학적 지층

구조처럼 보인다. 또한 여러 크기의 흙알갱이들이 커켜이 다져지면서 단단해져가는 광물의 순환 과정이 흙다짐 벽에 연출된다. 이렇듯 흙은 건축 재료로서 주변 환경과 재료적 동질성을 통한 장소성을 부여하는 버나쿨러적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

Table 1. Vernacular properties of earth architecture

프래뎀의 비판적 지역주의	버나쿨러 건축의 표현주제별 특성	흙건축의 버나쿨러적 특성	흙건축 사례 ¹⁸⁾
자연적인 요소들과 텍토닉한 형태	기후 및 풍토적 특성	기후대에 따라 구축방식을 달리하며 그로 인한 건축유형도 차이를 보임	
	재료적 특성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며 구조체와 마감재가 일체화 됨	
	구축적 형태	빌딩 프로세스의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 구조적 정체성 부여	
촉각적 요소	감각적 공간	자연상태의 흙이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재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가까움’의 회복	
공간 대비 장소화	장소성	현장 주변의 흙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재료적 동질성 부여	
		흙의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한 재활용의 가능성과 환경에 폐해가 적음	

(6) 지속가능성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 재료인 시멘트는 그 생산 단계에서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5%를 차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또한 건물 수명이 다한 후에도 파괴, 저장, 재활용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반면 흙은 지역의 흙을 사용함으로써 운반할 필요가 없으며 건물이 수명을 다하면 흙은 자연으로 돌아감으로 끊임없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흙이 다져져서 구축된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태로 부서져 최초의 흙으로 돌아가는 재료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흙건축은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축적되어온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예들 들어 더운 지역에서는 천연 에어컨의 역할을, 추운 지역에서는 햇볕을 저장하고 뿜는 축열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하였다.¹⁹⁾ 또한 흙건축은 전통적으로 노동

16) 방코(Banco) 건축에 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독일 사진작가 세바스티안 슈티저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강 유역의 모스크를 대상으로 유형분석을 한 사례가 있으며 이 책은 말리의 지역건축의 특징들을 흑백사진에 담음으로 해서 오늘날 보기 드문 조형 언어적 가치를 보여주었다. 아마도 조각과 건축의 경계를 허무는 사례이자 이러한 종교의식을 위한 건설 기술(art)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의 결과물이다. (Sebastian Schutyser, Banco: mosquées en terre du delta intérieur du fleuve Niger, 5 Continents, 2003)

17) 香山壽夫, 김광형 역, 건축의장강의, 국제, p.161, 2008

18) Laetitia Fontaine, Op. cit., 사진자료 발췌, 2012

집약적인 시공방식이 요구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흙건축의 특성들이 버나쿨러 건축에서 보이는 자연친화적, 지속가능성과 일맥상통한다.

4.2 현대 흙건축가 작품 분석

1981년에는 도시계획가 장 데티에(Jean Dethier)가 일명 '흙으로 지어진 건축'의 대규모 전시회²⁰⁾를 퐁피두센터에서 개최했다. 흙건축의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담아낸 전시회로 앞서 언급한 1964년 MoMA 전시회 '건축가 없는 건축'과 같이 흙을 소재로 한 각 대륙의 버나쿨러한 건축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는 핫산 파티와 앙드레 하베로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핫산 파티의 구르나 마을은 20세기에 들어서 근대건축운동의 사회적 이념이 표출된 집단 주거지이자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며, 앙드레 하베로의 몫티 메디컬 센터는 형태적으로 근대적인 단순성이 보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잘 담아낸 작품으로 의미가 있다. 마틴 라후와 게르노 밍케는 흙의 재료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현대건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릭 조이의 작품은 지역과 기후에 어울리는 버나쿨러적인 특성과 현대 디자인 언어를 잘 접목시킨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용 건축가의 작품에 담겨있는 우리 공동의 기억 속에 잊혀 가고 있는, 자연과 공존하는 흙건축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핫산 파티 / Gourna village

이집트 건축가 핫산 파티(Hassan Fathy)는 가난한 이집트 농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낙후되고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의 토착적 환경을 살린 건축을 하고자 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구르나 마을은 룩소르 근처에 194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로서 이 지역의 전통적 건축 재료인 어도비²¹⁾ 흙벽돌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케 했다. 또한 이집트의 토속적 주택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고온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게 열려있는 벽구조를 활용한 자연통풍 구조방식을 적

용하였다. 이 열려있는 벽구조에 적용된 누비안 아치 공법은 지붕 구조체 재료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 맞게 전통적인 기술을 기능적으로 잘 해결한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아치형과 휴먼스케일의 궁륭/돔 형태의 반복으로 지역적 전통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었다. 핫산 파티는 이 작품을 통하여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표현하였다.

(2) 앙드레 하베로 / Mopti medical center

프랑스에서 근대건축교육을 받은 앙드레 하베로(Andre Ravereau)는 알제리 갈라디아에서 건축문화유산 관리자로 있으면서 지역건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말리에 몫티 메디컬 센터를 건설하였다. 이곳은 알제리와는 달리 덥고 습한 지역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통풍에 가장 비중을 두었고 자연통풍을 위해 각 실마다 마주보는 벽을 개방하였다. 또한 보 상부를 개방하여 통풍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햇볕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로부터 실내 공간을 보호하였다. 건설 방법은 가장 경제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지역의 전통적 기법인 흙을 이용한 방코 기술을 이용하였다. 한편 지붕은 콘크리트 보를 이용하고 열을 차단하기 위해 흙을 입혔다. 흙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점과 지역 일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건물은 니제르 강에 면하여 규모가 큰 전통적인 모스크와 나란히 있다. 니제르 강에서 채취한 흙으로 만든 두 건물은 형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료적인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당시의 서구와 서남아시아 지역의 현대기술만능주의와 천편일률적인 건축에 경종을 울리며 말리의 지역 건축 문화를 잘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아가 칸(the Aga Khan Award)²²⁾ 상을 수상하였다.

(3) 마틴 라후 / Schlins house, Chapel of conciliation

스위스 태생 흙건축 전문가 마틴 라후(Martin Rauch)²³⁾가 주로 활용한 전통적 기술은 흙다짐이다. 수백만 년 동안 모암(母岩)이 풍화와 침식을 거쳐 모래와 점토로 부서지는 광물의 순환과정처럼, 흙다짐 건축을 통해 흙이 다져져서 구축된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태로 부서져 최초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스트리아 쉘링에 있는 주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 부분에도 콘크리트나 다른 재료 대신에 흙위에 역청을 칠하여 언젠가 있을 자연으로의 회귀를 준비

19) Laetitia Fontaine, Op. cit., p.38, 2012

20) 이 전시회는 1973년 1차 석유과동 이후 서구 유럽국가들 사이에 자연 재료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200여만 명의 일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Jean Dethier, Des Architectures de terre, Centre George Pompidou, 1981)

21) '어도비adobe'라는 단어는 이집트어 '토브thob' 혹은 '투브thoub'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어가 아랍어 '알 투브al toub'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아도브adobe'와 비슷하다. 이러한 명칭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진다. 한편 서아프리카에서는 '방코banco'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흙벽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다. (Laetitia Fontaine, Op. cit., p.50, 2012)

22) 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 was established in 1977 by His Highness the Aga Khan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Islamic culture as expressed through architecture. (URL : <http://www.akdn.org/architecture>)

23) 김순웅, 조성진, 최일, 마틴 라후 건축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축성에 관한 연구 : 흙건축의 생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p.159-167, 2013.12

하였다. 또한 현장 기초 땅파기에서 나온 주변의 흙과 돌 조각들을 직접 사용하여 다짐을 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과 재료적 동질성을 갖게 한다. 이 건물의 모든 내재된 재료는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다. 구조체이며 마감재인 흙다짐 벽은 지질학상의 형성에서 발견되는 광물의 단면적 표면과 유사할 정도로 커켜이 쌓여 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들어냄으로써 건축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적 진실성에 의한 형태적 단순함은 주어진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자 실질적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즉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형태의 본질을 신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원시오두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⁴⁾ 마틴 라후는 대부분의 작품에 빛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때 빛은 흙다짐 벽의 거친 질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유리나 나무 대리석등 다른 부드러운 재료들과 대비를 통하여 공간 안에서 시각과 촉각을 자극하고, 원초적인 색채는 빛과 어울려 심미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종교건축에서 빛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해의 교회에서의 빛 또한 외부구조물의 각재목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수직의 빛이 흙다짐벽의 수평선과 대비를 이루며 신성한 공간으로 진입함을 암시한다. 내부의 재단 부분은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스며든 빛에 의해 절제된 침묵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 건물은 베를린 장벽이 서있던 역사적 대지위에 도시 주변의 흙과 옛 건물의 벽돌 부스러기를 기억의 상징으로 흙다짐 혼합물에 섞어서 장소의 의미를 구현한 작품이다.

(4) 게르노 밍케 / Residence cum office, Kindergarten

독일 카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게르노 밍케(Gernot Minke)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은 압축흙벽돌을 이용하여 돔구조로 만들었다. 돔의 어원이 이탈리아에서 교회를 뜻하는 Duomo와 어원적으로 동일하듯이 종교적 신성함을 담는 곳을 의미한다. 즉 천창과 더불어 신성한 공간을 연출한다. 이러한 자연채광과 환기 방식은 버나쿨러 건축에서 흔히 사용되어진 방식이다. 돔구조 방식은 또한 단일재료로 벽과 지붕을 일체화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건축적 방식의 구조물이다. 서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건조한 사막기후에 유일한 건축방식이자 최적의 건축방식이기도 하다. 밍케는 기존 어도비 벽돌보다 산업화된 압축흙벽돌을 이용하여 10미터 직경의 돔을 완성하였다. 또한 돔의 상부를 녹지화하여 자연녹지의 확보와 더불어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시도했다. 감각적 공간을 위하여 흙벽돌 코너를 꼭면처리 함으로 해서 음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부드러운 표면 질감을 담아내었으며 흙의 가소적 성질을 적극 활용

하여 포도넝쿨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실내에 표현함으로 해서 자연적인 재료의 형태적인 가치를 구현하였다.

(5) 릭 조이 / Catalina house, Tucson mountain house

미국 건축가 릭 조이(Rick Joy)의 작품은 대부분 사막 지대에 세워졌으며 흙다짐으로 한 층 한 층 다져가는 과정에서 애리조나 주의 사막의 색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적층된 수평선은 마치 퇴적으로 형성된 자연석의 단면처럼 주변의 경관과 일체화 된다. 그는 인간의 요구와 대지의 특징이 조화된 건축을 원했다. 그는 또한 건축이 지역 문맥과 커뮤니티와 어우러지는 건축을 추구하고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형태를 원했다.²⁵⁾ 이러한 그의 건축 철학이 사막을 굳건히 덮고 서있는 두터운 흙벽과 날아갈 듯 가벼운 나비 모양의 지붕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그의 건축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의 전통을 이어받아 넓은 유리벽을 통하여 자연경관을 내부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하지만 사막지역 건축의 특성처럼 나머지 벽들은 개구부를 최소화하여 햇빛을 차단한다. 또한 흙벽들은 축열 효과를 통해 한낮의 무더위를 막고 실내의 일교차를 최소화한다. 1997년에 애리조나 주 투손 Tucson 시에 세워진 스튜디오 건물도 최소한의 개구부만 허락하고 천장의 열린 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실내의 벽면에 비끼며 자연스러운 조명을 연출한다. 이 빛은 고유한 질감을 갖는 흙다짐 벽과 움푹 들어간 벽감벽龕들과 어울려 독특한 물성을 자아낸다.

(6) 정기용 / 구인현, 자두나무집

건축가 정기용은 일찍이 ‘흙건축-잊혀진 정신’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에서의 흙건축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흙을 이용한 농촌건축의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촌은 개별적 건축으로 망가질 만큼 허약하지는 않다. 아직도 우리들 농촌에는 마을의 터가 살아있고 나지막한 옛 집들이 모여 있다. 이런 풍경은 풍토와 역사의 결과물들이다. 가까운 주변에서 흙을 채취하여 담틀에 넣고 공이로 다진다.’²⁶⁾ 그리고 토담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벽 보다 토담방식에 더 힘을 쏟는 이유는 그것이 전통적인 토담집의 운치를 재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보다는 콘크리트와 병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생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며 개별적 흙의 입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 응결되어 전체를 이룬다고 하는 물

24) 남성택, 이상진, 단순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9, p.184, 2011

25) Rick Joy, Rick Joy: Desert Work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13, 2002

26) 정기용, 흙건축-잊혀진 정신,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36 n.3, p.17, 1992

Table 2. Analysis of the vernacular properties of works constructed by contemporary earth architects

건축가	흙건축 이미지 ²⁷⁾	작품명	버나클러 특성					
			기후 및 풍토적 특성	재료적 특성	구축적 형태	감각적 공간	장소성	지속가능성
햇산 파티		Gourna village (1948, 이집트)	고온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기벽식구조를 이용한 자연통풍 방식 적용	지역의 전통 건축 재료인 어도비 흙벽돌 사용	누비안아치공법을 활용한 벽과 지붕의 일체식 구조	휴먼스케일의 전통적 아치와 궁륭/돔 적용	지역적 전통 및 경관과 조화	지역재료의 활용과 노동집약적인 시공방식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 표현
앙드레 하베로		Mopti medical center (1976, 말리)	자연통풍을 위한 마주보는 벽의 개방과 단열을 위하여 흙을 이용함	지역 재료인 니제르 강의를 사용함	서아프리카 지역의 방코 기술 적용	방코 건축의 특징인 조형적 섬세함 연출	주변 건물과 재료적 동질성을 부여하여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림	현장재료의 직접 사용과 지역 일손 활용
마틴 라후		Schlins house (2008, 오스트리아)	우천 시 비의 유속을 감소시켜 흙벽을 보호하기 위한 판석을 다짐시켜마다 설치함	현장 기초 땅파기에서 나온 주변의 흙과 돌 조각들을 직접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재료적 동질성을 부여	구조체이자 마감재인 흙다짐벽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들어냄으로써 구축적 정체성 구현	흙다짐 벽에 적극적으로 빛을 투영하여 거친 질감을 강조함으로써 해서 시각적, 촉각적인 공간을 연출	역사적 흔적 인 벽돌 부스러기 등을 흙다짐 혼합물에 섞어서 장소의 의미를 구현한 작품	자연상태의 흙을 최대한 보존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이 해체되었을 때 다시 입자 상태로 부서져 최초의 흙으로 돌아감
		Chapel of conciliation (2000, 독일)						
게르노 멩케		Residence cum office (1993, 독일)	천장을 이용한 자연채광과 환기 방식은 버나클러 건축에서 흔히 사용되어진 방식	어도비 벽돌의 현대화된 압축흙벽돌을 이용하여 규모가 큰 건축을 실현함	단일 재료로 벽과 지붕을 일체화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축적 방식 선택	흙벽돌 코너의 곡면 처리로 음환경을 원할하게 하고 부드러운 표면 질감과 흙의 형태적 조형성을 적극 활용	돔구조를 통한 신성한 공간을 연출함으로 해서 존재인적 장소를 구현	돔의 지붕부를 녹화화 하여 자연녹지의 확보와 더불어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시도
		Kindergarten (1996, 독일)						
릭 조이		Catalina house (1998, 미국)	사막의 전통 주거와 같이 개방부를 최소화하여 햇빛을 차단.	사막의 유일한 전통건축 재료인 흙을 사용	일체화된 식재와 같이 독립된 흙다짐벽 구조체	빛은 고유한 질감을 갖는 흙다짐 벽과 움푹 들어간 벽감벽龕들과 어울려 독특한 물성 표현	흙다짐으로 층 다져가는 과정에서 에리조나주의 사막의 색채를 잘 표현	축열 효과를 통해 한낮의 무더위를 막고 실내의 일교차를 최소화
		Tucson mountain house (2001, 미국)						
정기용		구인현 (2000, 영월)	여름과 겨울의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용이한 흙벽 사용	전통 민가의 주재료인 흙의 재현	전통 건축의 심벽공법과 같이 구조체로서의 콘크리트와 기능체로서의 흙벽을 구분함	농경 생활을 하는 친근함과 빛에 반응하는 따뜻한 정서 반영	흙다짐 결과 같은 수평적인 선들을 강조하여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풍토적 특색을 나타냄	여름에는 단열 효과로 실내를 신선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축열된 열을 집안으로 보내어 따뜻하게 해 줌
		자두나무 집 (2000, 춘천)						

27) 각 건축가 작품집에서 사진자료 발췌

성 때문이고, 또한 빛에 반응하는 따뜻한 숨결 때문이다. 콘크리트 거푸집은 판축공법의 담틀과 닮아 있다. 한쪽은 타설하고 스스로 응고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 라면 한쪽은 다져서 물리적 힘에 의해 응집된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²⁸⁾ 이렇게 닮은꼴인 두 재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게는 빛물을 담당하게 하고 토벽에게는 열과 공기의 조절을 위임하여 지어진 주택이 영월의 구인현과 춘천의 자두나무집이다.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와 대비되는 단순 기하학적인 형태로 계획을 하여 그 안에 여름에는 단열효과로 실내를 신선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축열된 열을 집안으로 보내어 따뜻하게 해 주는 흙벽을 세웠다. 특히 자두나무집은 기둥 보 방식으로 기존 전통가옥의 목구조를 콘크리트가 담당하고 나머지 벽체를 흙다짐으로 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근대 건축운동에서 간과되었던 버나쿨러적 시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버나쿨러 건축의 표현 주제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흙건축의 버나쿨러적 특징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현대 흙건축가 6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 나라마다,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기후 및 풍토적 특성에 적응하며 지어졌다.

둘째,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재료를 활용하며 구조체와 마감재가 일체화 되어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 즉 지역의 문화, 의식, 생활양식, 사회조직, 기후와 경관 그리고 유용한 재료와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된 단순 구축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흙의 가소적 성질과 조형성을 통한 질감 표현과 다양한 감각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다섯째, 대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으며 지역적 전통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장소적 동질감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지역재료의 활용과 노동 집약적인 가치 그리고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한 재활용의 가능성과 환경에 폐해가 적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을 추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대 흙건축의 특징들은 건축사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버나쿨러 건축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현대 건축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흙건축과 버나쿨러 특성과의 관계 정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앞으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흙건축가들의 작업을 좀 더 심층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광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Jean Dethier, 'Des Architectures de terre', Paris, Centre George Pompidou, 1981.
2. Kenneth Frampton, 'Prospects for a critical regionalism', Prospecta: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Vol 20, 1983.
3. Rick Joy, 'Rick Joy: desert wo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2.
4. Sebastian Schutyser, 'Banco: mosquées en terre du delta intérieur du fleuve Niger', Paris, 5 Continents, 2003.
5. Amos Rapoport, 이규목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6. Laetitia Fontaine, Romain Anger 공저, 김순웅, 조민철 역, 건축 흙에 매혹되다, 효형출판, 2012.
7. 香山壽夫, 김광현 역, 건축의장강의, 국제, 2008.
8. 김광배, 현상학이 건축이론에 미친 영향과 현상학적 건축설계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12, 2007.
9. 김낙중, 루이스 칸 건축의 구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론, 1999.
10. 김순웅, 조성진, 최일, 마틴 라후 건축작품에서 나타나는 구축성에 관한 연구 : 흙건축의 생태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9 n.12, 2013.12.
11. 김승범, 김광현, 케네스 프램턴의 비판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점과 현대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8, 2011.08.
12. 남성택, 이상진, 단순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9, 2011.09.
13. 변태호,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지), v.6 n.1, 1997.03.
14. 임영환, 김광현,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획적 연구 방향 탐침,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6 n.11, 2010.11.
15. 임영환, 지역주의 건축의 현대적 해석과 지속가능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9 n.1, 2013.01.
16. 정기용, 흙건축-잊혀진 정신,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36 n.3, 1992.05.
17. 황혜주, 흙건축, 씨아이알, 2008.

접 수 일 자 : 2016. 01. 10

심사완료일자 : 2016. 02. 20

게재확정일자 : 2016. 02. 23

28) 정기용, 영월 구인현, 건축문화, p.75, 2000